



존재감 폭발 손흥민, '이주의 팀' 올랐다

레스터시티전에서 2골 1도움으로 토트넘 승리 이끌어
18·19호골... 차범 넘어 한국인 유럽리그 시즌 최다골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넘어 한국인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골 신기록을 세운 손흥민(30·토트넘사진)이 영국 BBC 선정 이주의 팀에 뽑혔다.
손흥민은 2일(한국시간) BBC가 발표한 2021~2022시즌 EPL 35라운드 주간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축구전문가 가스 크룩스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선정한 이주의 팀에서 손흥민은 우측 공격수에 자리했다.
크룩스는 "손흥민은 케인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선수"라며 "올 시즌 EPL에서 왼발로 11골을 넣었다. 주발이 아닌 약한 발로 그보다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2011~2012시즌 로빈 판 페르시(12골) 뿐"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손흥민은 전날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

서 2골 1도움으로 토트넘의 3-1 완승을 견인했다.
전반 22분 코너킥으로 해리 케인의 헤더 선제골을 도왔고, 후반 15분엔 데얀 콜루 셉스키의 패스를 받아 왼발 터닝슛으로 18호골을 넣었다.
그리고 후반 34분엔 전매특허인 왼발 감아차기슛으로 19호골을 터트렸다.
리그 18, 19호골에 성공한 손흥민은 지난 시즌 자신과 1985~1986시즌 차 전 감독이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 시절 넣은 17골을 넘어 한국인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 17골을 경신했다.
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17골·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따돌리고 득점 부문 단독 2위가 됐다. 선두 모하메드 살라(22골·리버풀)와는 3골 차다.
베스트11 공격수에는 손흥민과 가브리엘 제주스(맨체스터시티), 올리 왓킨스(아스톤빌라)가 선정됐다.
미드필더에는 앤서니 고든(에버턴), 나비 케이타(리버풀), 로드리(맨시티), 조시 브라운힐(번리)이 올랐고, 수비수로는 네이선 아케(맨시티), 버질 판 다이크(리버풀), 크리스티안 로메로(토트넘)가 뽑혔다. 골키퍼는 조던 픽포드(에버턴).
스카이텔레비전/뉴스

달라진 롯데, 시즌 초반 '태풍의 눈'

에이스 찰리 반즈 5승 다승 1위
한동희, 7홈런 0.436 화끈한 타격



롯데 자이언츠가 KBO리그 시즌 초반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지난달 2일 개막한 KBO리그는 정확한 한 달이 지났다. SSG 랜더스는 우승 후보의 면모를 뽐내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대 이상의 성적표를 받은 구단도 있다.

롯데는 지난주(4월26일~5월1일) 안정감 있는 마운드의 힘을 앞세워 4승 1무 1패의 좋은 성적을 올렸다.

시즌 15승 1무 9패의 성적을 올린 롯데는 2위로 올라서 1위 SSG(19승 1무 6패)와의 승차를 3.5경기로 좁혔다.

롯데는 개막 전 한화와 함께 최약체로 분류됐다. 그러나 롯데는 5할 승률 언저리에서 머물더니 최근 연승을 거듭하며 2위로 도약했다.

아직 시즌 초반이라 롯데가 상위권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선발전과 타선의 위력이 심상치 않은 것은 분명하다. 에이스 찰리 반즈는 올해 5승을 올려



롯데자이언츠가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2 KBO 리그' LG트윈스와 경기에서 4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 뉴스

승 1위, 평균자책점 0.65로 1위를 달리고 있다.

토종 선발진인 박세웅, 이인복, 김진욱은 시즌을 더할수록 더욱 위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글렌 스파크맨만 살아나 준다면 완벽한 선발진을 구축할 수 있다.

불펜진에서는 김유영과 구승민, 최준용이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다. 부상에도 돌아온 김원중이 복귀전에서 호투한 것도 긍정적인 조짐이다.

타선에서는 한동희가 커리어 하이급 시즌을 보여주고 있다.

한동희는 4월 한 달간 개인 월간 최다인 7홈런을 터뜨렸다. 한동희는 지난주 5할

타율을 찍어 올해 무려 0.436의 고타율을 기록중이다.

롯데에서 마지막 투혼을 불사르고 있는 이대호와 함께 전준우, 안치홍이 활약하며 타선을 리드하고 있다. 이대호는 올 시즌 0.356의 고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롯데의 팀 타율은 0.266으로 10개 구단 중 1위다.

롯데는 KT 위즈와의 원정 3연전을 치른 후 6일부터 시작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맞붙는다. 롯데는 올해 KT와의 상대전적에서 2승 1패를 기록했고, 삼성과의 맞대결에서는 3승 무패로 압도적인 전력을 보여줬다.

소지섭, 4년 만의 안방 복귀

MBC 새 금토극 '닥터로이어'
천재 의사 모습 첫 스틸 공개

배우 소지섭이 4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작품인 MBC 새 금토극 '닥터로이어'가 2일 촬영 스틸을 공개했다.

'닥터로이어'는 조작된 수술로 모든 걸 빼앗기고 변호사가 된 천재 외과의사와 의료범죄 전담부 검사의 메디컬 서스펜스 법정드라마다.

소지섭은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돼 돌아온 더블보드(두 개의 전문의 자격

보유) 천재 외과의사 한이한 역을 맡았다. 뛰어난 실력과 냉철한 판단력, 인간미까지 장착한 한이한은 극 전개 중심에 서는 인물이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 소지섭은 하얀 가운을 입는가 하면, 수술복 차림으로 수술에 몰두하고 있다.

첫 번째 사진 속 누군가를 걱정하는 듯한 눈빛에서는 인간미가, 두 번째 사진 속 날카롭게 반박하는 눈빛에서는 천재적인 면모가 느껴진다.

제작진은 "소지섭의 탁월한 연기력과 존재감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한이한 캐



배우 소지섭이 MBC 새 금토극 '닥터로이어'로 4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릭터를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4년 만에 드라마로 돌아와 '닥터로이어'를 이끌어갈 배우 소지섭의 활약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닥터로이어'는 27일 첫 방송한다.

장윤정, 당나귀 귀 새로운 보스로 합류

"내가 노는 건데 법카를 왜 써?"
회식비 개인 결제로 배포 자랑

가수 장윤정이 회사의 기동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1일 방송된 KBS 2TV 예능물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당나귀 귀) 154회에서는 가수 장윤정이 새로운 보스로 합류했다.

이날 장윤정은 먼저 자신이 '장회장'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20대부터 그렇게 불렸다. '결어디나는 중소기업'으로 불리다 보니 '회장으로 부르자' '나보다 돈 많으면 회장이다'라고 해서 장난으로 부르던 게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윤정의 영상에서 자신의 사단과 함께 콘서트 준비 이후 회식을 연모습이 공개됐다. 영상 속에서 장윤정은 공과 사

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일이 없는 날 점심시간에 사단을 소집해 회식 자리를 열곤 자신이 직접 MZ세대 유행어라는 태극주를 맡아 주고, 후배가 해 주는 판데 테스트에 스텝 없이 임하기도 했다.

장윤정은 식사가 끝나자 개인 카드로 회식비 53만 6000원을 결제했다. 법인카드를 잘 안 쓴다"고 답해 시선을 끌었다. 그는 "법카를 왜 쓰냐. 내가 먹는 거고 노는 건데. 그걸 왜 회사에 부담시키냐"고 덧붙여 남다른 배포를 자랑했다.

BEYOND GOLF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딜)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